



좋은 친구

FRIENDS

2021. 7
Vol.011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의 뜻있는 분들이 심은 작은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6개국 31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이야기]



1. 인도네시아 인드레아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직업훈련생의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2. 마스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코로나 긴급지원키트를 들고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 나가고 있는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의 모습에서 활기가 넘칩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11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

발행정보 제11호
발행일 2021년 7월 30일
발행인 김은호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전화 02-483-5007
E-MAIL friends@hifriends.or.kr
Facebook hifriends153 / 검색 '사단법인프렌즈'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김은호(오륜교회 담임목사)

이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김정섭(주식회사 토비야스 이사),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이갑우(전 르호봇그룹 회장), 황한호(전 오륜교육자선교회 회장)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2021년 1월 1일 ~ 6월 30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강유진 강은경 고경숙 고예원 고혜원 공인우 권병근 권윤진(권재영) 권태일 김광중 김대균 김동규 김명자 김민정 김백수 김범수 김서윤 김선영 김영재 김예찬 김옥태 김원순 김은나래 김은주 김인후 김재욱 김재은 김지현 김지훈 김진서 김진영 김진현 김현미 김효석 김희숙 남중수 민경화 박광우 박교은 박미영 박성근 박수영 박순종 박옥심 박은숙 박지안 박지연 박혜영 방호애 배현덕 서동민 석경아 성요안나 성지혜 손미진 손홍인구 송순자 송원국 송정란 신비아 신소영 신영주 신원정 신유진 신지은 신지호 신희민 심예숙 안은미 안정미 원현준 유일주 윤혜진 윤효숙 이경민 이귀형 이미애 이미정 이민희 이수정 이신영 이연숙 이영애 이옥천 이은숙 이정은 이주운 이진 이진옥 이희자 임남경 임동하 장길자 장세상 전시내 정나흠 정명희 정선순 정연숙 정중호(정예지) 조명덕 조미경 조미숙 조영하 최성욱 최예솔 최진우 하인경 한영실 한혜미 함영애 허경태 홍미희 홍복순 홍주희 황은경 **단체** (주)상일무역 (주)퓨어앤코웍스 개봉샘물교회 꿈미학교 루디아 사랑하는우리교회 성수동(강상호) 안암제일교회 은총교회 주식회사동림케미칼 참빛교회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NTENTS

- 04 인사말
김명진 (사)프렌즈 이사
- 05 현장이야기 '하나'
재봉틀에 날개를 달아 볼까요?
- 08 현장이야기 '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 11 아동결연
저를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 13 후원자스토리
왕가의 아이들의 특별한 바자회
- 16 신규사업
8인치 교실에서 새로운 세상을
- 18 현장이야기 '셋'
똑똑똑, 너의 마음을 똑똑 (Talk Talk),
그 두 번째 이야기
- 20 핸드온소식
꿈과 희망의 밑그림에
마음을 색칠해요~!
- 22 프렌즈 News
2021 프렌즈 상반기



“작은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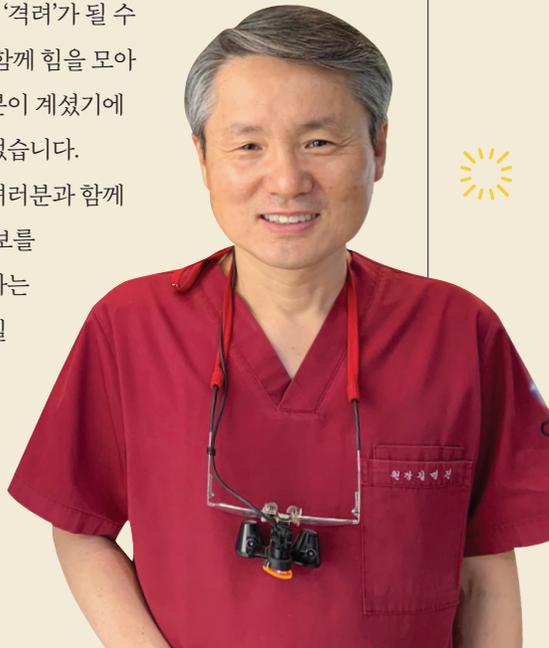
몇 년 전, 건강에 자신 있던 제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를 절제된 생활을 하던 저는 오진이 아닐까 생각하고,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지만, 이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심각하게 높아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운동을 결심했지만, 60대를 눈앞에 둔 제가 매일 아침 4~5km를 뛰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집을 나선 후 2km 정도를 지났을 무렵인데 땀이 비 오듯 하고, 숨은 턱에 차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뛰기를 포기하려던 찰나, 맞은 편에서 어떤 외국인 남자가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거리를 뛰었는지 지쳐 보였고, 땀에 흥건히 젖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마주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가 저를 보며 씩 웃어주더니 오른 손 엄지를 치켜세워 주었습니다. 아주 찰나였는데 저는 그 순간 그의 미소와 내게 보내준 ‘엄지 척’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방전된 핸드폰을 충전기에 연결했을 때 녹색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온몸에 다시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용기가 솟아나고, 다리도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계속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 우리나라 3대 최고봉을 오르는 것입니다. 한라산은 이미 젊었을 때 올랐고, 지리산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아들, 남동생과 함께 설악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지리산을 다녀온 자신감으로 충만해 선두에서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한 루트는 매우 가파른 곳이어서 페이스를 조절해야 했는데, 무리를 했는지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면서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 김 명 진

내려갈 일이 걱정되었습니다. 힘들게 정상에 오른 뒤 하산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마다 통증과 함께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쉬기를 반복하고, 목은 마르고... 잠시 쉬려는데 어느 남자가 배낭에서 주섬주섬 비닐봉투를 꺼내더니 오이 하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다행히(?) 평소에 오이를 안 좋아하는 아들은 건너뛰고, 동생과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고 시원한 오이는 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갈증은 없어지고 새 힘이 솟는 듯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남은 하산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작은 ‘오이’ 한 조각이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프렌즈는 지친 누군가에게 건네는 ‘엄지 척’이고,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건네는 작은 ‘양식’입니다. 용기를 내어, 남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북돋워 주는 ‘격려’입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 ‘엄지 척’이 되고, ‘양식’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힘을 모아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분과 함께 그 소중한 행보를 힘없이 이어가는 프렌즈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봉틀에 날개를 달아 볼까요?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1인당 GNI(국민총소득)은 4,050달러로 상승했으나 전체 인구 대비 빈곤층은 여전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실업과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가운데, 현지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KT&G와 함께 직업훈련센터를 세우고, 무료 봉제기술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과 함께 첫걸음을 떼다

2020년 12월, KT&G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구성된 상상 펀드기금 3억원을 후원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중 1차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 말랑에 위치한 UKCW대학의 협조를 받아 대학 부설 직업훈련센터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캠퍼스 이전 후 리모델링된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받은 덕분에 이론과 실습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재단실, 물품보관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구비할 수 있었고, 교육커리큘럼 개발, 운영계획 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1기 교육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1월에 구축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령으로 교육이 보류되다가 3월 8일부터 저소득층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1기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3월 25일에는 코로나19로 미루었던 센터 개소식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제한된 여건이라 지역주민을 초대하지는 못했지만, KT&G 인도네시아 제조법인의 후원택 법인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과 교육생, 가족들을 모시고 간소하면서도 의미 있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도 막지 못한 배움의 열정

1기 교육은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교육이 이뤄졌지만, 수료 시에는 당장 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옷을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생들의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놀라운 결과 뒤에는 교육생들의 열정과 교사들의 헌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3개월의 교육 중 5차례의 테스트가 있었는데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교육생들은 별도의 보충수업을 통해 단계별로 충분히 봉제기술을 익힌 다음에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었고, 그룹 메신저를 활용해 수업 외 시간에도 수시로 질의응답을 받아 실습을 이어가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룹 메신저를 열면 최소 몇십개씩 대화가 오가는 탓에 한동안 메신저 열기가 두려웠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였다면~ 짐작이 가시겠지요?^^

즐거움과 감동으로 축제가 된 수료식

5월 말에 있었던 1기 수료식은 축제같았습니다. 우수 수료생 시상, 교육생들이 직접 준비한 시 낭송에 서프라이즈로 마련된 스승의 노래와 감사 인사, 선물 증정까지 서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느라 현장은 어느새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뭐니 뭐니해도 수료식의 하이라이트는 패션쇼였는데요, 1기 교육생들이 자신이 직접 만든 옷을 입고, 모델로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아~ 이게 정녕 3개월 배운 솜씨란 말인가' 할 정도로 실력은 놀라웠습니다. 난생 처음 서보는 패션쇼 무대에 가끔은 긴장도 하고, 스텝도 영키고, 어색한 웃음에 서로 폭소를 하기도 했지만, 그 모습 자체로 서로에게 즐거운 추억과 선물이 되었습니다.

1기의 성공적인 직업훈련교육 결과는 수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교육 전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교육생 중 83%가 '생계 및 소득 창출과 봉제기술 습득'으로 교육 참여 이유를 들었는데 사후 조사에서 87%의 교육생이 그 목표달성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것입니다. 수료생 중 한 명은 수료 직후에 벌써 직접 만든 옷을 판매함으로써 실제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사랑을 믿고

현지 활동가들의 제안으로 주 교육장인 대학 부설 센터와 별도로 자녀 양육과 교육을 병행하기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소규모 교육과 활동도 진행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인드레아 센터 주도로 진행되었는데, 봉제기초기술을 갖고 있지만, 좀 더 교육이 필요하고, 여건상 집합교육에는 참여할 수 없는 여성들이 가정에서 교육받고,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소득을



얻으면서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10명의 저소득가정 여성들이 자신의 재봉틀을 가지고 일하고 공부하면서 51,000장의 마스크를 만들어 냈고, 그 마스크와 생필품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긴급지원키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상황은 계속 엄중했던 터라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았고, 꼭 필요한 곳에 키트를 전달하기 위해 현지 활동가들이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과 함께 보육원,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대규모 인원이 생활하는 지역교도소와 같은 공공시설에 키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초에는 사이클론 세로자로 피해가 극심한 쉰바섬과 수해를 입은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을 위한 긴급 지원도 이뤄졌고, 2021년 5월 말 기준, 총 32개의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과 24개 마을에 43,500장의 마스크와 생필품 1,950박스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재봉틀에 날개를 달아볼까요?

6월 초에 시작된 2기는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30명 모집에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있었을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진일보한 계획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농산물로 구성된 긴급지원키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봉쇄로 도시로의 이동이 막히면서 도매업자들이 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지 않아 농산물을 폐기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고, 어쩌다 구매가 이뤄져도 가격이 낮아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시에 거주

하는 저소득층은 제한된 공급으로 전례없이 비싸진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이 힘들어 농산물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로부터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되 도심에서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으로 구매하여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매한 농산물로 키트를 구성해 도시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봉제기술교육에서 시작했지만, 이처럼 이 사업은 더 큰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무료교육을 받은 혜택을 또 다른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자발적 후원으로 돌려주고 있고, 교육을 통해 무료함과 무기력한 생활에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되찾게 되었다며 스스로 찾아와 후배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봉사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7월 7일 현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는 234만 5018명, 누적 사망자 수는 6만 1868명,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189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에도 본 사업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마을 지도자들, UKCW대학 이사회, 인드레아센터 활동가 등 수많은 협력의 손길과 사업의 주인공인 교육생들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중한 후원으로 힘이 되어주신 (주)KT&G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와 모든 임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남은 사업 기간 최선을 다해, 더 큰 꿈과 희망을 일궈 보답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사랑은 남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솜바섬 세로자 긴급구호

지난 4월 4일 열대성 사이클론 세로자(Seroja)가 인도네시아 솜바섬을 강타했습니다. 2008년 이후 인도네시아를 강타한 10번의 사이클론 가운데 최악의 피해를 남긴 세로자로 인하여 이재민 11,406명, 사망자 181명, 부상자 271명, 실종자 45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66,036채가 손상을 입었습니다(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재청-BNPB, 4/12 기준).

프렌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4월과 5월, 2회에 걸쳐 긴급구호키트를 배분하였고, 현재는 주요 시설물의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긴급구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과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로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래 글은 함춘환 현지 활동가의 1차 긴급구호활동 중 일부를 인용, 편집한 것입니다.

4월 5일

연일 쏟아지는 폭우와 강풍으로 많은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일어났다. 솜바에서 활동한 지 14년째인데 이렇게 험난한 날씨는 처음이다. 숙소는 7번이나 정전되었고, 인터넷, 핸드폰도 자주 끊겨 외부와 연락하기 힘들다. 마을 진입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일정도 변경해야 할 것 같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걱정된다. 부디 무사하기를...

4월 6일

도움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동솜바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고, 고립된 마을들은 먹을 식량조차 없다고 한다. 빨루뵘장 산속 마을은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데, 9개 마을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아 정말 애간장이 탄다.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이제 돌아가 구호 물품을 준비해야 한다. 지체되면 물품 확보도 어려울 것이다.

4월 7일

자이툰 센터와 사택이 완전히 무너졌고, 센터 두 곳의 지붕도 반쯤 파손되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소알, 라밍깃 마을의 진입로는 산사태로 막혔고, 동솜바 공항은 물에 잠겼으며 다리도 끊어졌다. 중솜바 아나와이는 완전 고립되어 식량이 하나도 없는데 아직 진입할 수가 없다. 몸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솜바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무너진 건물들은 나중에 건축하더라도, 당장 필요한 식량과 식수, 담요 등은 하루빨리 공급해야 한다. 공항이 다시 열리는 대로 들어가려고 한다. 속히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본다.



4월 13일

봉제직업훈련센터 교육1기생 30명이 솜바섬 특별 후원금을 주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되어 마음을 모아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어 정말 감동했다. 진정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한마음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4월 14일

또다시 코로나 검사하고(요즘 매주 코로나 검사를 하게 된다), 짐들도 다 꾸렸고, 솜바섬에 미리 주문한 쌀, 라면 등도 운반되고 있어 준비를 마쳤다. 이제 동솜바 19개 산속 마을, 중솜바 1개 마을, 서솜바 6개 마을에 각각 식량 배분을 하면서 피해 상태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복구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시 솜바섬으로 출발! 화이팅이다!!!!

4월 15일

동솜바에 들어와 일단 와잉아푸 도시 근처 수해 지역들을 방문하여 각 가정에 준비한 식량들을 배분하고 있다. 집마다 가재도구를 내어 길에서 말리기도 하고, 쓰러진 나무에 막혔던 길들도 다시 통행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아직 인터넷, 전화망은 완전 엉망이지만, 내일은 빨루뵘장 산속 마을 10곳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4월 16일

산속 마을 중 첫 번째로 방문한 자이툰 센터. 센터와 사택이 반이나 붕괴됐지만, 아이들과 마을 분들에게서 불평을 찾아볼 수 없다. 이들에게 가져간 쌀과 라면, 과자들을 나누어 주고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솜바섬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게 된다. 언제 폭풍우가 왔던가 할 정도로 새파랗게 맑은 하늘에 트럭을 타고 빨루뵘장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새삼스럽다.



4월 17일

산사태로 길이 무너져 갈 수 없는 빨루뵘장 산속 5개 마을과 침수된 땅에 차가 빠져 갈 수 없었던 또 다른 마을의 대표들을 가장 가까운 마을로 오게 해서 쌀과 라면을 나눠줬다.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오토바이와 말에 나눠 싣고, 짊어지며 마을로 돌아가는 모습들에 가슴이 찡하다. 다시 긴 거리를 달려 빠라까엠비와 카와우에 들어갔다. 보는 즉시 말문이 막혀버렸다. 센터는 거의 파손되고 약 50여 채의 집들은 주저앉거나, 지붕이 날아갔다. 경작하던 옥수수밭은 완전 초토화되었고, 그나마 남은 것은 구름떼같은 메뚜기떼들이 모두 잡아먹고 있었다. 다 쓰러진 집을 어떻게든 버티려고 줄을 묶어 끌어당기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도 보인다. 갈 곳이 없어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집에 갇난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4월 18일

오늘 큰 위기를 겪었다.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산속 길을 달려 마후마을로 가던 길이었다. 마지막 산 고개를 넘는데, 트럭 앞바퀴를 연결해 주는 철판이 갑자기 모두 깨지면서 차가 제어되지 않았다. 정말 간신히 차를 세웠다. 몇 바퀴만 더 갔으면 바로 낭떠러지였고, 만약 내리막길이었다면 그냥 산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전화도 안 터지는 산꼭대기에서 몇 시간을 애를 쓰다 결국 아놀드 선생님과 동네 오토바이를 얻어타고 3시간 동안 산길을 내려왔다. 감사히도 큰 길가에서는 트럭을 얻어 타고 2시간을 달려 와이아푸로 들어왔다. 매일 강행군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은 새벽 일찍 출발해 밤늦게 돌아와 몸이 녹초가 되었는데 트럭 뒤에 쪼그려 앉아, 우연히 본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 하루의 수고가 씻은 듯 사라진다.



4월 20일

6일간의 긴급구호활동을 마치고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서티모르섬 꾸뵁으로 들어왔다. 외곽지역 마을들에 구호 물품을 전해주면서 책임자들과 만나 향후 복구계획을 상의하였다. 지반이 무너지면서 많은 집의 바닥과 벽들이 쪼개져 언제 붕괴될 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현재 약 100여 명이 작은 공간에 모여 함께 잠을 자며 생활하고 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솔직히 많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남아있는 활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

4월 21일

서슴바 지역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현지 책임자들을 통해 9개 마을에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 1주일간 숨바섬, 꾸뵁 외곽지역 일정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나는 돌아가서 쉴 곳이 있지만, 다 쓰러진 집에서 아이들과 버티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폭우와 홍수로 농경지가 떠내려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은 메뚜기떼들이 먹어 치워 먹을 것마저 없는 이들의 애처로운 눈빛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떠오른다. 어떻게 해야 더욱 이들을 품고 섬기며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인도네시아는 각종 재난,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자카르카 한센인마을에서는 폭우 피해가, 말랑에서는 지진 피해가, 숨바섬에서는 사이클론 피해가 있었습니다. 각종 재해에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려 인도네시아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숨바섬을 비롯하여 고통받고 있는 현지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빠른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저를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도 하이데라바드 사업장 결연 아동의 코로나19 극복기

“수모나~ 괜찮니?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건 아니니...?” 후원자에게 보낼 성장보고서를 작성하던 중에 수모나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프렌즈 결연 아동인 수모나에게서 받은 사진은 안색이 안 좋고 어딘가 심하게 아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모나~ 이사진 말고 다른 사진은 없어? 혹시, 어디 아프니?” 사진을 받고 바로 전화 통화를 해보니, 수모나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 감기 같은 증상이었으나 두통과 몸살이 심해져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이 상한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치료가 시급했으나 코로나 환자 급증과 열악한 인도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병원은 이미 만원이고, 입원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수모나와 온 가족들은 좁은 집에서 서로 격리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고통과 불안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4월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에 40만 명까지 증가하며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치 전쟁이 터진 것처럼 사람들은 거의 집에서 숨어 지내다시피 하던 때였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일단 격리를 위해 국립병원으로 옮겨지고 별다른 대책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방치되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한 시점부터는 병원조차 가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수모나의 아버지는 두 아이의 학비와 몸이 아픈 아내의 약값을 위해 택시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모든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모나



치료약 및 영양제



마스크



수모나의 가족(왼쪽부터 수모나, 아버지, 어머니, 오빠)

코로나 봉쇄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막내딸 수모나가 갑자기 원인 미상의 양성 판정을 받게 되자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고,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고민하던 저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프렌즈에 연락해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프렌즈에서는 흔쾌히 수모나와 가족들을 돕기로 결정하였고, 수모나를 위한 코로나19 처방약과 한 달간의 영양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면역력 개선을 위해 식료품과 과일, 비타민 등을 같이 전달하고, 보건위생 물품으로 마스크와 침대보, 깨끗한 옷도 전달했습니다. 치료비와 여러 후원 물품을 전달하면서 여러 차례 전화로 통화하고, SNS로 비대면 소통을 이어가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살피주었습니다. 두 차례 정도는 마스크를 쓰고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직접 찾아가 그간의 경과도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수모나와 가족들은 약해져 있는 몸과 마음까지 돌봄을 받고 마침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사이 수모나는 2회 검사를 받았고, 모든 가족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수모나와 가족들은 프렌즈와 후원자분들께 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왔지만, 한국 후원자들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회복을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와 가족 모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의료적 지원도 물론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후원자들이 보내준 응원과 격려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마음이 수모나와 가족들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 인도에서 결연 아동들을 돌보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 16살 소녀인 수모나는 매우 영특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10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10점 만점에 9.5점을 맞으며 좋은 성적으로 10학년을 마쳤습니다. 프렌즈와 후원자님 덕분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장래가 총망되는 청년으로 성장하여 인도 사회의 귀한 일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사람들을 모두 도울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 한 가족이라도 도울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수모나 가족은 프렌즈의 도움으로 다시 미래를 향해 한 발 한 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모나가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프렌즈와 모든 후원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 * 어려운 여건과 감염의 우려 속에서도 아동과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현지 책임자, 활동가들께 감사드립니다.
- *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아동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것도 모르고, 검사와 치료조차 받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인도와 전 세계의 아동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프렌즈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왕가의 아이들의 특별한 바자회

프렌즈 가족 중에서 가장 어리지만, 저희에게 가장 무서운(?) 책임감을 안겨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렌즈의 소중한 후원자로 꾸준히 나눔을 이어오고 있는 ‘왕가의 아이들’ 친구들인데요, 이 왕가의 아이들을 이끌고 계시는 권은혜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Q.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프렌즈 가족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나눔이란 거창한 일, 큰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일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들과 함께 매년 바자회를 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기쁨이 무언가를 갖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작은 손길이지만 늘 저희의 나눔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프렌즈에 감사드립니다.

Q. ‘왕가의 아이들-전통숯놀이학원’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무척 색다르다 느꼈는데요,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왕가의 아이들’이란 곳이 궁금해요.

A. 과학적 지혜를 담은 전통 왕가교육에서 모티브를 얻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와 함께, 왕가의 자녀들처럼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왕가교육에는 품위 있는 예절교육, 타인을 살피는 사회성교육, 자연을 벗 삼아 풍부한 감성을 키우고 창조하는 예술성, 학문적 탐구와 사색, 가치교육, 이 모든 것의 기본인 체력향상까지 다 담겨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통해 완벽한 아이보다 행복한 아이, 똑똑한 아이보다 탐구적인 아이, 자신감 넘치는 아이보다 자존감 있는 아이, 나만 아는 아이보다 우리를 아는 아이로 키우고자 합니다.

Q. 왕가의 아이들에게는 ‘작은 대통령’이 있다면서요? 원장님께서 출간하신 ‘실패축하파티’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매년 ‘작은 대통령’이 세워지는데요, 공약도 생각하고, 발표도 합니다. 투표로 뽑힌 작은 대통령은 동생들을 돕고, 친구들 의견을 모아 먹고 싶은 식단, 가고 싶은 견학지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결정해요. 진정한 리더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과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는 마음도 배웁니다.



왕가의 아이들의 특별한 바자회



다수가 뽑은 사람을 인정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은 작은 사회를 배우는 것이니까요. 자기 생각을 자기답게 표현하고 한계를 넘는 경험도 합니다. 건강한 실패는 아이들에게 큰 자산이 되죠. '실패 축하파티'도 아이들에게 매년 해주던 파티를 동화책으

로 만든 것인데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기는 특성 중 하나가 잘하는 내 모습만 인정하고, 못하는 부분은 감추려 들어요. 그래서 실패를 축하해주며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배워가게 합니다. 실패한 내 모습도 괜찮다고 바라보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실패했을 때 격려해주고, 사랑과 변함없는 태도로 존중해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을 즐기게 되고 그 과정을 즐겼던 아이가 해내는 힘은 어른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보는 경험은 삶의 적극성으로 이어집니다. 리더가 아니라

도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작은 대통령과 실패축하파티는 모두 결과가 아닌 과정에 힘을 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아이들을 보며 교육의 힘을 보게 됩니다.

Q. 매년 아이들과 함께하는 바자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린 친구들과 이렇게 준비하고 진행하기까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A. 선한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이들은 돕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눔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워요. 처음 바자회 때 더운 나라에서 물도 전기도 없어 고생하는 아이들을 보며 회의를 했는데, 친구들이 "에어컨을 사줘요. 냉장고를 사서 보내요."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체감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대상을 미안마 어린이들, 스리랑카 전정고아, 한쪽 눈이 실명된 안드레아스 등으로 구체화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홍보지, 간판, 점이나 피클 등을 직접 만들고, 다른 나라 문화나 한쪽 눈을 가린 채 생활해보는 경험도 하게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발품 팔아가며 홍보하기도 했죠. 정산까지 아이들에게 맡긴 철저히 아이들 중심의 바자회였어요. 이런 행사는 교사중심의 일회성이 되기 쉬운데, 아이들이 직접 힘들게 체험해봐야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진심을 담아 물건을 팔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바자회를 마치면 영상으로 제작해 보는데 친구들이 "마음이 이상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며 울먹이기도 하더라고요.

올해는 시장놀이 개념으로 바자회를 열었어요. 가정으로 전단지를 보내고, 마켓을 열었죠. 초등친구들은 푸드코트를 맡아서 동생들에게 판매할 분식을 만들고, 야채가게, 약세사리가게, 신발가게, 옷가게, 장난감가게, 책가게가 열렸습니다. 이 시장놀이 형식의 바자회는 의외로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 눈 수술 해줘야 해요. 이거 사세요. 이것도요." 하며 얼마나 아무지게 판매를 하는지, 오신 가족분들이 다 그 모습에 반해 그 친구가 판매왕이 되었던 일도 있었죠.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던 것 같아요.

Q.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함께 이끌어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한마디!

A. 우리 친구들, 너무 고맙고 기특해요. 친구들의 선한 영향력이 차곡차곡 쌓여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고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수고를 기쁘게 여겨주시며 동참해주시는 왕가의 아이들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함께 아이들의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Q. '왕가의 아이들'의 원장님이 아닌, '권.은.혜'님의 앞으로의 꿈이나 방향, 소망이 있다면?

A. 제 꿈은 원장과 동화 작가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 꿈을 이뤘으니 앞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왕가의 아이들과 세상을 밝게 빛으로 비추는 학교인 '세비아 대안학교', 그리고 좋은 책들을 출판해서, 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선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전 세계의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기쁨이 무언가를 갖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작은 손길이지만 늘 저희의 나눔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프렌즈에 감사드립니다.”



Q. 준비하는 과정이나, 진행하시면서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인상 깊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A. 친구들이 직접 홍보 전단지를 돌리며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OO 일 OO시에 꼭 오셔야 해요."하고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정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친구들 모습이 너무 예쁘다면 서요. 또, 3세였던 어린 친구가 바자회 1시간 내내 "안드레아스 형

* 올해 왕가의아이들이 바자회를 통해 전달한 후원금은 아프리카 차드사업장의 마하나임초등학교 친구들을 위한 빵과 우유 급식비용으로 사용됩니다. 프렌즈가 친구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차드 친구들의 배를 빵빵하게!!! 채워줄게요. 고맙습니다.

8인치 교실에서 새로운 세상을

<세네갈 킷킷스쿨 프로젝트 소식>

초등학생 시절, 작은 손으로 연필을 꼭 잡고 점선으로 적힌 글자를 따라 쓰며 한글을 익히고, 받아쓰기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또 덧셈 뺄셈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쯤, 혼자 간식을 사 먹고 거스름돈을 잘 받아 뿌듯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숫자를 셈할 수 있다는 것,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작인지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세네갈 북쪽에 사는 아이들

세네갈 수도에서 450km 떨어진 칠레부바카르 마을에는 약 4,000여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아이들에게는 매일 아침 달려갈 학교도, 글자나 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일상에서는 종족어를 사용하지 않, 학교에서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일상어와 학습어가 다르고 학습어를 배울 수 있는 교과서가 거의 없어 문맹률이 높고, 교사와 교실 부족 등으로 학교에서 제대로 된 배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었지만, 아직 시계를 정확하게 볼 줄 모르거나, 간단한 셈도 열 손가락으로 한참 세어야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생계가 어렵고, 간단한 계산이 어려워 일상에서조차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교실을 확장할 수도, 교과서를 구할 수도 없는 현실이

지만, 아이들과 여성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작은 8인치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바로 8인치 태블릿을 통해서 혼자서도 꾸준히 기초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에누마 킷킷스쿨(Kit Kit School)

에누마가 개발한 킷킷스쿨은 8인치 태블릿 하나에 교육용 어플인 '킷킷스쿨'을 설치하면, 초등학교 1~3학년 과정의 언어와 기초 수학 과정을 공부할 수 있으며, 어플 한 계정당 100명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설치되면 인터넷 없이도 다양한 도서와 동영상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도 없이도 게임 방식의 학습으로 흥미를 갖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탄자니아, 케냐, 르완다 등 엄격한 현지 테스트를 통하여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고, 각각의 계정을 통해 학습자의 실력 향상 정도를 데이터로 파악할 수 있어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에누마에 따르면 2018년 케냐 키쿠마 난민캠프에서 270명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 테스트 결과, 문맹이었던 아동들이 단 8주 동안, 주 5일 30분씩 매일 킷킷스쿨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문해 능력 평가시험에서의 정답률이 32~46% 증가했고, 독해 분야의 정답률은 16.6%에서 62.8%로 증가하였으며, 발음 지식 분야 정답률은 49.9%에서 88.6%로 뛰었습니다. 수학적 능력 평가 역시 킷킷스쿨 사용 전에는 122점 만점인 테



마을 내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과서



킷킷스쿨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스트에서 20점 미만의 성적을 받았던 하위 20%(7명)의 아이들이 8주 만에 49~95점으로 뛰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기본적인 문해력이 없는 아동들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후, 문해력은 최대 5배, 수리력은 최대 7배까지 상승했습니다.

킷킷스쿨은 문해와 수학 학습 활동이 각 280개씩 들어 있고, 130개의 도서 콘텐츠와 120개의 영상 콘텐츠, 8개의 음악, 미술 등 창의력 향상 톨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양을 충족하는 약 150불 정도의 태블릿만 확보되면 초등3학년 수준까지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8인치의 작은 태블릿이지만, 그 자체로 학교와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마을의 여성들도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초 수학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에서 자신감을 얻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학습을 돕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배우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아이들의 배움에도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교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유네스코에 따르면 2021년 5월 기준, 전 세계 학령기 아동의 90%가 학교 파행으로 교육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 교육을 원격수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지만,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아이들은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코로나

로 인한 교육 위기는 일시적 위협이 아니라 영구적 위협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학생에서 어린 노동자와 어린 엄마로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칠레부바카르 마을로부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10~50가구가 사는 수많은 내지마을들이 있습니다. 학교 한번 가보지 못한 무수한 아동이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인근 2개 초등학교 120명의 아동들과 AVEC 센터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킷킷스쿨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점차 마을의 다른 학교와 내지마을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킷킷스쿨은 현재 영어와 스와힐리어버전으로 개발되어 있어 불어와 종족어를 주로 사용하는 세네갈에서 기초언어 교육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기초 산수 교육은 당장 적용할 수 있으며, 영어교육도 고등학교년에는 적용 가능합니다. 에누마의 불어 버전 개발이 완료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문해 교육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던 날,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앉아있던 아이들이 태블릿을 꺼내 설명을 시작하자 눈빛이 변하고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마음도 잠시, 교실 전체에서 단 1초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흥미롭게 킷킷스쿨에 푹 빠져 수학 콘텐츠를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8인치 교실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시작한 세네갈 친구들의 너른 꿈을 응원해주세요. 그들이 만난 새로운 세상의 소식을 안고 곧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킷킷스쿨로 공부하고 있는 아이

‘똑똑똑, 너의 마음을 톡톡 (Talk Talk)’

그 두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가게의 후원을 받아 강동구 내 4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코로나블루’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똑똑똑, 너의 마음을 톡톡(Talk Talk)’ 사업이 진행된 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위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숨 쉬는 것도 익숙해진 듯하지만, 한 여름밤 후두두둑 내리는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시작된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전히 고민이 되곤 합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타인과의 거리감, 마스크를 내려 서로를 볼 때 낯설고 어색한 느낌마저 들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돌보며 다시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상처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렌즈는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건강하게 성장해갈 수 있도록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새로운 곤충을 키우며, 또 한국 너머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또래 친구들 이야기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키는 한 뼘 이상 자랐고, 마음의 근육은 더 탄탄해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주노트 활동, 반복되는 일상에 스며든 것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감정들을 느꼈나요?”
 평범한 일상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거나,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아이들도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글로 적고 말로 표현하는 것에 어색했지만, 차츰 마주노트 활동을 친구삼아 본인의 감정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핸드폰밖에 없어 하루종일 지루하다는 아이, 늦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하고 설렌다는 아이,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혼자 집에 있어 외로움을 느낀다는 아이 등 코로나19로 인해 느끼는 감정도 다양각색이었습니다. 일상에서 ‘아니, 싫어’와 같은 말을 자주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좋아, 맞아’ 등의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의 속 깊은 나눔도 있었습니다.

마주노트활동 중인 아이들



장순이 무덤



비누만들기 활동 후

마주노트 질문에 아이들은 쑥스러워하기도, 또 답하기 어색해하고 귀찮아하기도 했지만, 본인의 마음을 노트 위에 표현하고, 또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통해 점점 자신의 감정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마음을 마주하는 습관이 아이들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자연교감 활동, 나의 새로운 친구 장순이

장수풍뎅이를 키우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작은 생명체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처음 곤충 집을 양손으로 들고, 그 안에 있는 풍뎅이를 바라보던 아이들의 호기심 가득했던 눈빛이 기억납니다. 본인이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근심 하다가도, 일주일 뒤에 신나는 표정으로 와서 풍뎅이와의 일상을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풍뎅이를 키워가던 한 아이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키우는 장수풍뎅이의 이름을 ‘장순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 맞춰 밥을 주고, 잘 놀

고 있는지 살피며 애정을 듬뿍 주어 장순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장순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장순이가 죽었다는 사실에 그만 평평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미 한가득 마음을 준 친구와의 이별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얼까 고민하던 아이는 장순이를 위한 무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순이가 좋아했던 포도맛 젤리 하나를 무덤 곁에 두었습니다. 외롭지 말라고 오리 눈사람을 친구로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장순아, 행복하게 잘 살아.”
 아이가 남긴 건의사항에 다음 희망 친구는 ‘사슴벌레’인데, 이유는 2년이나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갑니다.

LOOK AFTER and LOVE ONE ANOTHER

아름다운 음식의 칼럼바를 배우고, 멸종위기동물 피규어가 들어간 비누를 만들어 양로원에 게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또 저 멀리 아프리카 차드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모아 한음, 한음 연주하며 하모니를 만드는 시간,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별, 하트 모양의 비누를 만드는 시간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일상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또 타인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후에는 운동카드로 게임처럼 즐겁게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 공감 카드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 또 코로나19를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우리들의 보물창고’ 시간도 갖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몸도 마음도 더욱 튼튼하게 자라갈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꿈과 희망의 밑그림에 마음을 색칠해요~!

• 핸즈온 신규 키트 소개

프렌즈에서는 집콕하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핸즈온 봉사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봉사자 중에는 바느질로 필통을 완성해 뿌듯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았지만, 좀 더 쉬운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요청에 부응하여, 핸즈온 봉사활동의 신규 키트 '컬러링 에코백&필통'이 만들어졌습니다. 귀여운 프렌즈 캐릭터 밑그림이 그려진 에코백과 필통을 패브릭용 마카로 색칠해 완성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참~ 쉽죠~? 꿈과 희망이 담긴 밑그림에 따뜻한 마음을 색칠하여,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실 봉사자분들을 기다립니다.



키트구성 컬러링 에코백&필통 세트, 패브릭용 마카, 봉사인증신청서
봉사인증 에코백+필통 모두 완성하여 제출 시 4시간 인증
 * 1365 봉사인증은 대학생, 성인만 가능

• 일러스트레이터 / 작가 '홀링' 인터뷰

이번 신규 키트에서는 특히 프렌즈의 캐릭터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탄생시킨 분은 어떤 분인지! '홀링' 일러스트레이터(이하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Q. 작가님~ 프렌즈와 만남이 이 어운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후원자분들에게 간단히 소개 부탁 드려요.



A. 안녕하세요, 일상의 다정한 구석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홀링입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2014년도에 프렌즈 캐릭터와 포스터 일러스트 작업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Q. 우아. 벌써 7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프렌즈 캐릭터들은 여전히 귀여움을 유지 중이죠. 심지어 이 캐릭터가 입사 동기의 40%(?) 였다는 직원도 있을 정도랍니다. 하하. 이 캐릭터들을 그릴 때 특별히 생각했던 점이 있으신가요?

A. 오~~ 이렇게 실제로 작품에 대한 반응을 접할 기회가 잘 없었는데,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작업 의뢰를 받았을 때 "여섯 명이면 좋겠다" 외에는 자유롭게 맡겨주셔서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프렌즈에서 후원하는 아이들 사진을 많이 봤는데, 처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밝고 즐거운 아이들의 표정이 좋아서 그 느낌을 잘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프렌즈 담당자와도 의논하며 여러 번 다듬고 수정한 덕분에 프렌즈와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탄생한 것 같아요.



Q. 최근에도 핸즈온 봉사활동에 활용될 컬러링 에코백&필통 디자인에 함께 참여해주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A. 사실, 캐릭터들을 만든 이후에 새로운 이야기를 주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와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반갑고,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Q. 그래서 그런지 캐릭터들이 더욱 즐거워 보이네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바쁜 가운데에도, 책을 출간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A. 맞아요~ 『내가 처음 엄마라고 부른 날』이라는 육아 그림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제가 아기를 낳은 밤, 무서운 마음이 들어 쓰기 시작한 그림일기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초보 엄마가 1년간 기록한 매일 매일의 이야기와 아기의 성장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하고 만들어서 그런지 더 애정이 가요~"

번외 코너 "사실, 저는 이런 아이예요!"

• 홀링 작가가 직접 소개하는 프렌즈 캐릭터

★ 작가님이 뽑은 최애 캐릭터



성격 사람을 좋아하며 단순하고, 적극적이다
특징 운동, 힘쓰기



성격 수줍음이 많고, 다재다능하다.
특징 조용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성격 활발하고 흥이 많다.
특징 춤을 잘 추고,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운 에너지를 준다.



성격 조용하고, 호기심이 많다.
특징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돌보고, 동물과 식물을 사랑한다.



성격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뽐뽐.
특징 노래에 재능이 있고,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기 좋아한다.



성격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특징 취미는 독서, 관찰력과 상상력이 좋다.

2021 프렌즈 상반기 News

북한이탈 다음세대를 위한 1인 기숙사



프렌즈가 2021년 1월부터 북한이탈주민 다음세대를 위한 1인 기숙사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1호 입주자로 선발된 김모 학생은 양강도에서 왔으며, 현재 서울 소재 S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프렌즈는 탈북청소년대안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을 만큼 리더십을 갖추었고, 뜨거운 학업 의지를 갖추었으나 주거 안정이 필요한 김모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탈 다음세대를 위한 기숙사 장학생 제1호로 선발하였고, 강동구 모처에 1인 기숙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북한이탈 다음세대를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역량과 헌신적인 태도를 갖춘 자원봉사자들이 김모 학생의 학업과 생활을 돕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이탈 다음세대를 위한 기숙사 확대와 일대일 멘토링, 장학사업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Wiser Academy 시설 보강



탄자니아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잔지바르섬에 위치한 Wiser Academy의 시설 보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노예무역의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잔지바르섬은 내륙에서 관광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아 섬에 왔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빈민촌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산업이 침체되어 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Wiser Academy는 이 지역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재정난으로 시설 일부를 완성하지 못해 인가 취소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교실, 사무실, 부엌, 복도 등의 보강 작업과 물탱크 설치가 진행되고 페인트 작업도 이뤄져 위기 상황을 넘기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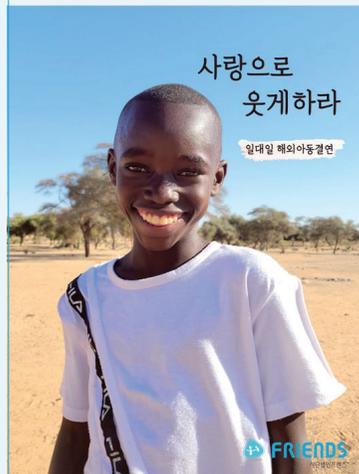
꿈미소 물품 후원



강동구 아동자치센터(센터장 김지은) '꿈미소' 친구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해외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내에서도 열심히 홍보하여 해외에 보낼 마스크 342개, 의류, 잡화 등의 후원 물품과 응원 메시지를 담은 엽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예쁘게 색칠한 엽서에는 “너의 꿈을 응원할게!”, “난 네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등 또래 친구들에게 보낼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해외 아동이 함께 행복한 어린이날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꿈미소 친구들의 소중한 마음이 현지 아이들에게 밝은 에너지가 되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2021 첫 번째 만만한세상



프렌즈의 후원 행사인 '만만한세상(만원으로 만드는 행복 가득한 세상)'이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비대면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웃게 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로 후원을 기다리던 세네갈 34명, 차드 19명, 인도 워닝 19명, 인도네시아 1명 등 총 73명의 아동들이 결연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연후원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사업 정기 후원에 동참해 주신 88명의 후원자, 사업 일시후원, 핸드온키트, 해피빈 후원 등 다양한 형태로 동참해 주신 74명의 후원자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이 아동들과 사업 현장에 잘 전달되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HL 임직원 핸드온봉사활동



DHL Express Korea 임직원 1,162명이 '해외 아동들을 위한 티셔츠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활동을 위해 어우러진 티셔츠가 제작되었고, 봉사자들이 패브릭용 염색파스텔로 밀그림에 컬러링을 더해 특별한 티셔츠를 완성했습니다. 동일 디자인에 제한된 컬러링 재료에도 불구하고 개성과 아이디어가 듬뿍 담긴 다채로운 티셔츠가 완성되어 흐뭇함을 더했습니다. 가족 봉사로 참여한 임직원 자녀들의 귀여운 응원 쪽지와 나누고 싶은 장난감이 함께 담겨 오기도 하고, 예술 작품 같은 완성품이 오기도 했습니다. 재택과 현장 근무의 바쁜 일정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모든 임직원들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프렌즈 티셔츠는 차드, 세네갈 등 해외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키트 후원금은 케냐 키베라 마을 아동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현장안전기본교육



IOM(국제이주기구)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현장안전기본교육에 프렌즈 사업팀 신나리, 이소연 간사가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 세계 분쟁과 재난 현장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인도적 지원 현장에 파견되거나 방문 예정인 NGO 종사자, 정부 관계자 및 기타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의 현장 안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실무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상황에 대해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도적 지원 현장에서의 개인 안전 및 안전 인지, 현장 방문 준비 및 이동 안전, 인질 사고 방지 및 예방과 관련된 교육들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대응 능력을 갖추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Homepage www.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777501-04-111940, 신한은행 100-023-015009